

#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 임실군청 SNS 홍보 영상 '인기'

### 아쿠아페스티벌 홍보 위한 솟품 콘텐츠 조회수 1만회 돌파

### 최경식 남원시장,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찾아 핵심사업 예산 반영 건의

최경식 남원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날씨에도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최종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남원시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날씨에도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최경식 시장은 주종안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예산심의관, 최용호 기재부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 등 주요 사업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남원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재부 최종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날 주요 건의 사업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대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국토부의 드론스포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원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지

속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핵심발전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복도 및 국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청 SNS가 2024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SNS 플랫폼을 통하여 짧은 영상인 솟품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전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2024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의 흥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축제 홍보 솟품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현재 콘텐츠의 조회수는 1만여 회에 달하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군은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총 4개의 SNS 플랫폼을 운영하며 군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번 아쿠아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임실N치즈축제,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N페스타 등 지역 축제에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등 임실군과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청 SNS가 군정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등 임실군 대표축제와 관광지들을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실군 홍보에 앞장서준 직원들과 임실군 SNS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고추장 불고기' 대박 행진

###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실적 추월 성과 달성

순창군이 지난해 유명 셰프 이원일과 협업해 개발한 특화 음식인 '고추장 불고기'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순창의 새로운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고추장 불고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방문객 수는 28,000명을 돌파했으며, 매출액 역시 4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

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 고추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순창 고추장 불고기는 한식의 깊은 맛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국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번 고추장불고기 흥행으로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순창을 새로운 미식 여행지로 부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군은 여행 미식지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제2의 대표 음식 개발에 착수해 '비슬람 가이드 1스타 출신인 유현수 셰프와 손을 잡고 '순창삼합'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돌입했다.

'순창삼합'은 순창의 풍부한 식문화 유산과 특산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지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장류를 활용한 순창 대표 음식 개발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새롭게 개발 중인 '순창삼합'도 반드시 성공시켜 순창이 전국 최고의 미식 여행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지난해 유명 셰프 이원일과 협업해 개발한 특화 음식인 '고추장 불고기'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순창의 새로운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최영일 순창군수, 이원일 셰프)

## 남원 몽심재 고택 목조 문화유산 합동 소방훈련 실시

### 남원시는 7일 남원시와 남원소방서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남원 몽심재 고택에서 목조문화유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가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연계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으로 유사시 화재대응 매뉴얼에 의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초기대응 숙달에 역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중요 문화유산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능력을 배양시키고, 무더위를

맞아 소홀해지기 쉬운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소방차량 등 1대 4 소방공무원 및 지위소방대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발생 시 방송 송과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진화 및 상황별 대처하는 요령, 유관기관 간 공조 및 지휘체제 점검과 소방출동경로, 출동시간 단축 등으로 이뤄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농기센터,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황 파악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서 남원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현장 현황 파악(약 150개소)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파악의 목적은 남원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애로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추후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다. 또한 관내 식품기업의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농촌융복합 도약·돌출 지원사업',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의 선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약 150개소의 관내 정상 운영 중인 식품 제조가공업체(김부각, 추어탕, 전통주 제조 등의 품목)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나 메일을 통한 유선 상 의견 청취를 통하여 현황 파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로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